



연안

여름 방학

일기

이름: 서유진, 최유정

# 안전 수칙들의 중요성 # 안전 필수

# 연안안전 # 연안 안전 그림일기



오늘 나는 훈이와 바다로 놀러왔다.  
 난 훈이한테 슬리퍼를 신어라고 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곧장 바다로 가버렸다.  
 결국 훈이는 소라에 찢려 발바닥에 피가 났다.  
 바보 훈이!



훈이는 화가 나 소라를 돌에 던져 깨트리려고 했다.  
 나는 곧장 훈이의 팔을 잡아 소라를 다시 빼앗았다.  
 아무리 화가 나도 죄 없는 소라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슬리퍼를 신지 않은 훈이 잘못인데.





나는 소라를 바다에 풀어주었다.

훈이는 민망해 보였다. 갑자기

훈이는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고 당장 와 보라고 했다.

무슨 일이지?

훈이가 가리킨 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써져 있었다.



훈이는 바다에 널브러져 있는

커다란 네모 튜브를 보여줬고

나를 끌어당기며 같이 튜브에 타자고 이야기했다.

튜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난 얼떨결에 튜브에 올라타게 됐다.



튜브 위에서 본 바다는 반짝반짝했다.

햇님도 바닷속에서 빛이났다.

파도는 햇님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

햇님과 같이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다!



잠깐 뒤를 돌아보니, 헉! 너무 멀리 와 버렸다.

내가 있던 곳이 너무 작아 보인다!

훈이랑 나는 팔로 노를 저어

봐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어떡하지?





훈이와 나는 엉엉 울었다. 너무 무섭다.

집에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튜브가 갑자기 육지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멀리 엄마가 뛰어오고 있었다. 으앙! 엄마, 무서웠어!

엄마도 나만큼 무서웠나 보다 나보다

더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안전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다 쪽을 보니 내가 구해준 소라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던 건 소라와 물고기들 덕분이었 같았다.  
 위험은 조심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것이었고  
 안전 수칙은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였다는 걸  
 깨닫는 여름이었다.

